로컬플러스

군산시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운영

군산시는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5월 한 달을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시는 이월 체납세액의 8%인 12억 4700백만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고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체납자 331명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 부서 담당계의 책임징수제를 실시한다.

또한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반'을 운영하고 압류재산 공매와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 조회 및 압류, 신용정보등록, 출국금지 등을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관광객 안내책자 배부

군산시가 관광객을 위한 안내책자 '이야기가 있는 오감만족 군산'을 제작·배부해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야기가 있는 오감만족 군산'은 휴대하기 편리한 손바닥 크기로 제작해 군산시를 대표하는 100여개의 모범음식점과 맛집에 대한 역사 및 음식정보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음식사진·약도·영업시간 등을 주요 관광지별로 게재하고 관광안내도와 군산의 볼거리, 교통정보, 군산팜 등도 함께 게재되어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마당놀이 '수탈전' 퍼레이드 봉사자 모집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매주 토요일 박물관 개항장터에서 펼쳐지는 근대 마당놀이 '수탈전' 퍼레이드에 참여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근대 마당놀이 수탈전은 박물관의 대표문화상품으로 2012년 창단된 시민 연극 자원봉사자 군박패(군산근대역사박물관 놀이패)가 참여해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박물관 야외 개항장터에서 공연한다.

이에 박물관에서는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 제공을 위해 마당놀이 전에 이루어지는 퍼레이드에 참여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자원봉사자로 지원하면 개항장터가 열리는 토요일에 공연 및 퍼레이드 복장을 착용하고 도우미로 참여해 공연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자원봉사 참여방법은 근대역사박물관 사무실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어린이날 다채로운 행사 개최

군산시, 월명종합경기장에서 민속놀이 체험·먹거리 부스 등 마련

군산시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 어린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먼저 5일 오전 10시 월명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제94회 어린이날 행사'에서는 민속놀이 체험과 먹거리 부스 등 다채로운 공연과 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시상식과 단체장 축사 등 공식행사를 최대한 생략하고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해 어린이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어린이행복도시 군산이 추구하는 어린이들의 참여를 단계적으로 높이기 위해 각 행사 부스마다 인기투표를 실시해 다음 행사에 참고할 방침이다. 이날 금강철새조망대에서는 생태체험학습관, 조류공원, 부화체험관 등에서 철새스탬프 색칠하기, 육지거북체험, 앵무새먹이주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조망대 입구에서는 동물모양의 풍선아트 체험을 시작으로 본관에서는 페이스페인팅, 비누 만들기, 철새엽서쓰기, 철새소망달기 등이 진행된다.

생태체험학습관에서는 가족들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배지로 만들어보는 체험과 철새모양의 스탬프를 찍어 색칠해 보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조류공원과 동물마을, 부화체험관에서는 산양, 토끼 등에게 먹이를 주고 육지거북이를 만져보며, 앵무새에게 모이를 주는 행사가 어린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새만금방조제 아리울예술창고 및 공연장 일원에서도 '키즈페스타'가 펼쳐진다.

전통한지연희극 '해와 달이 된 오누이'를 비롯해 만들기 체험, 전통놀이 프로그램 등이 열리며 전문진행자와 함께하는 레크레이션, 다양한 경품도 마련됐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오후 2시와 오후 4시 2회에 걸쳐 열리며 부대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린다.

/군산=문정곤 기자

익산시, 온마을 도란도란 어린이 놀이세상·민속 큰잔치 등 펼쳐

오는 5월5일 어린이날을 맞아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행사가 익산시 곳곳에서 열린다.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오는 5월 7일 오전10시~오후 3시까지 '온마을 도란도란 어린이 놀이세상'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영, 유아를 위한 맞춤형 놀이축제로 온가족이 함께 즐기고 익산시의 행복육아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나는 탭댄스가 접목된 어린이 뮤지컬 '춤추는 나무'는 오전 11시, 오후 2시 총 2회 열린다. 육아용품을 나누는 육아용품 플리마켓이 센터 앞마당에서 마련되고, 센터 내에서는 색깔, 향기, 소리, 맛 등 오감을 활용한 다양한 놀이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 밖에 페이스페인팅, 요술풍선, 솜사탕, 팝콘 만들기, 추억놀이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센터 앞마당에서 진행되고, 육아지원학회에서 진행하는 '흡연예방교육' 이동체험장이 펼쳐진다.

원광대학교 소운동장에서는 (사)삼동청소년회와 원불교 중앙교구가 주최하는 제31회 솜리 어린이 청소년 민속큰잔치가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투호, 제기차기, 씨름, 죽마놀이, 널뛰기 등 전통놀이마당과 전통 떡 메치기, 다문화체험, 법문 탁본 참여마당 등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어울려 한마당을 펼치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같은 날 중앙체육공원에서는 익산청소년사랑회와 익산시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제22회 어린이날 큰잔치가 열린다.

이 행사에서는 림보, 훌라후프, 제기차기 등 놀이마당을 비롯해 에어바운스 놀이터, 낚시놀이, 제기 만들기 등의 체험마당과 달인대회, 청소년 댄스 및 밴드 공연, 어린이 동요제 등 다양한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어려운 환경에서 학업에 정진하면서 타의 모범이 되어온 어린이 20명에게는 익산시장상이 수여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정헌율 익산시장 주민과의 소통 나섰다

24일까지 29개 읍·면·동 방문 정책방향 등 설명

정헌율 익산시장이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소통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2일부터 24일까지 29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주민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정 시장은 2일 함열읍을 찾아 함열읍민의 날 기념식에서 취임인사를 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나눴다. 격식과 형식을 탈피해 시민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며 의견을 듣고, 시정운영 방향을 상세히 설명했다.

오후에는 오산면을 방문해 시의원, 기관·단체장, 종교단체 대표 및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작은 현안에서부터 생활불편사항까지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정헌율 시장은 이날 ▲모든 시민이 행복한 계층별 평상 맞춤형 지원체계 수립 ▲시민 중심이 된 주민자치 시스템 강화 ▲안전, 공정, 열정이 함께하는 건전한 사회건설 등의 3가지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또한 7가지 정책과제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도농 생상으로 희망찬 내일 준비 ▲전통을 잇는 문화예술로 품격높은 도시건설▲향토 산업과 지역 상권 활성화 ▲더불어 사는 행복의 도시 익산만들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보장 ▲선진 주민자치제도 보급으로 시민권 강화 등을 설명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앞으로 시민 한분 한분의 의견을 듣고 더 나은 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언제나 낮은 자세로 귀 기울이며 오직 익산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시장이 되겠다."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K-Smile 캠페인 추진

외국인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도록만들기 위해

군산시는 전라북도,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전북관광협회, 원광보건전문대와 공동으로 최근 근대문화거리에서 상인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범시민 친절문화 확산을 위한 'K-Smile 캠페인'을 추진했다.

2016 봄 여행주간 및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해 친절문화 확산과 친절한 군산관광 실천을 위해 K-Smile 캠페인 가두 홍보, 상인 대상 친절 에티켓 안내, 리플릿 및 기념품 배포 등의 홍보 이벤트를 진행했다. K-Smile 캠페인은 친절과 미소로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해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참여형 친절 캠페인으로 숙박, 교통, 음식, 쇼핑 등 관광접점 중심 서비스 교육 및 수용태세 개선을 통한 친절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16 봄 여행주간 전라북도 대표 프로그램인 '군산 근대골목길 Festival'에 대비해 군산시 관광 수용태세 강화를 위해 관광진흥과, 식품위생과, 도시계획과 등 관련부서와의 협업 및 도시재생지역 주민협의체와 핸썸공동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군산=문정곤기자

원광대병원 직원대상 보호구 착용·탈의 훈련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최두영)은 감염예방과 안전한 병원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호구 착용과 탈의 훈련을 시행했다.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에 걸쳐, 매주 1회씩 시행한 보호구 착용·탈의 훈련에서는 고글, 마스크, 전신보호복, 덧신, 장갑 착용과 탈의하는 순서 및 방법, 관리 등의 지침을 숙지하고 실습을 통한 체험 훈련으로 진행되었다.

개인 보호복을 입은 후 형광물질을 사용해 노출 없이 제대로 벗었는지도 평가하였다.

훈련에 참여했던 직원은 "눈과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은 실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보호구 사용을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실습을 통한 교육이 매우 의미 있었다. 보호구 사용의 달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로 언급하였다.

이재훈 원광대병원 감염관리실장은 "작년 메르스 중환자 치료 시 두려움 없이 치료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미리 보호구 사용에 대한 훈련이 결정적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보호구 착용 및 방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인식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료진의 감염위험성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보다 지속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